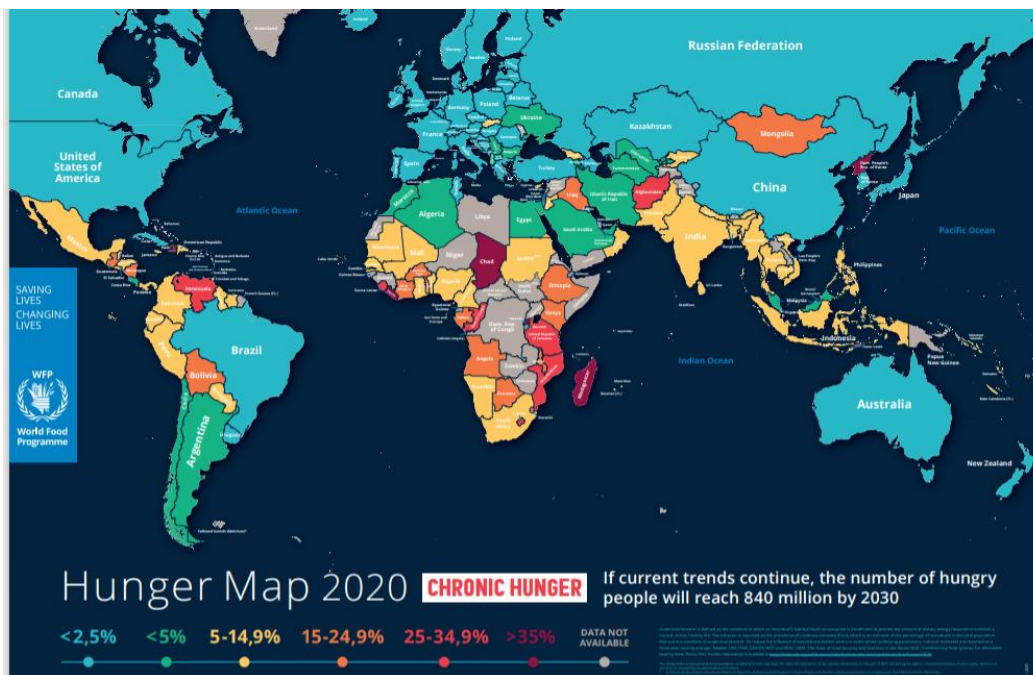


박서정 기사

(국문)

코로나 19로 인해 후퇴하는 ZERO HUNGER

지속가능개발목표의 2번 기아 종식은 코로나 19로 위협받는 대표적인 목표이다.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달성하며, 개선된 영양상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강화하는 목표는 일부 조금씩 실현되고 있는 추세였다. 지난 20년 동안 영양실조자의 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모두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의 약 8억 2천백만명의 사람들은 기아에 허덕인다. 특히 배고픔을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전체 인구의 12.9퍼센트가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개발 도상국이며, 이로 인한 영양 부족은 연간 5~310만명의 어린이들의 절반(45%)이 사망하도록 만든다고 한다. 더군다나 코로나19는 세계 식량 공급망의 약점을 심화시키면서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WFP(World Food Programme, 유엔세계식량계획)와 15개 인도주의개발 협력 기관이 공동으로 내놓은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은 사람들은 주로 분쟁, 기후변화, 경제난을 겪은 지역에 거주한다. 이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로 *급성 식량 위기(IPC/CH 3 또는 그 이상)에 처한 인구가 2019년 1억 3,500만 명에서 올해 1억 3,000만 명 증가한 2억 6,500

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 추세라면 2030년까지는 전세계의 약 8억 4천만 명이 기아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IPC/CH: Hunger지표로 1NONE부터 5Catastroph까지 척도로 구성된다. 3단계CRISIS부터는 가정을 보호하고 식품소비격차를 줄이기 위해 긴급한 행동을 요구하는 단계이다.

코로나 19 이후 농업 및 관련 산업 역시 변화하여 국내외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물류 및 인적자원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세계 농업의 식량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여 식품의 수요와 공급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현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경봉쇄 조치로 식량 수입 의존국가 중 곡물 자급률이 낮은 곡물 수입국가를 중심으로 축산용 사료와 식품 가공용 원자재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식량안보의 위험이 증가한다. 현재 국제 곡물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식품 가격 상승과 먹거리 사재기 우려 역시 존재한다. 또한, 국경폐쇄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입국 지연은 주요 인력 송출국가로부터 계절노동자 입국이 중단되면서 농번기의 노동집약적인 과수와 채소 재배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이 근로자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농업 부문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보건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이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이며 이는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 19는 개선된 영양상태 달성이라는 목표 역시 흔들고 있다. 세계 전역의 휴교령에 따른 공공급식 중단으로 약 3.2억명에 달하는 어린이 급식 공급이 중단되면서 급식 의존도가 높은 어린이들의 영양 실조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영국 정부는 취약 학생을 위해 대응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일부 국내식당을 개방하거나 학교 구성원 가족에게 바우처를 배분하고 있으며 인도는 선생님을 중심으로 지역의 농산물 꾸러미를 수집 및 배분하고 있다. 게다가 물류 유통 제약에 따른 식품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층, 격리가 필요한 고령자, 식품구매력이 낮은 소농 등)의 먹거리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세계식량공급망의 불안정한 추세는 식량원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코로나 19가 해외 식량원조가 필요한 44개 국가로 확산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식량원조가 어려워져 식량위기를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준, 이수행, 박정지, 2020)

WFP는 ZERO HUNGER을 위한 5단계 활동(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우선 지원, 농장과 시

장을 이어주기, 음식 쓰레기 줄이기,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농작물 장려, 첫 1000일동안의 유아 영양을 우선 고려)을 중심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중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세계시민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다.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40억 톤의 식량 중 3분의 1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경제에 연간 약 7,500억 달러의 손해를 끼친다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종종 음식물이 남아 돌아서 버려지고 있는 반면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 단계에서 식량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는 창고시설이 미비하거나 농민이 농작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게 되어 농작물이 제대로 가공되거나 소비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요한 양만큼 구매하고 요리하는 습관, 필요 이상 주문하지 않는 습관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노력이다.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또한 환경오염과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는 것을 자각하고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WFP의 경제분야 선임연구원 아리프 후세인은 “코로나19는 이미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수백만 명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일당이 있어야만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수백만 명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이동 통제와 세계 경제 불황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은 이미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을 작게만 받아도 벼랑 너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적인 재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정상’이 우리를 여기에 오게 했기 때문이다. 팬더믹 위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지구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기존의 식량체계와 시장이 얼마나 팬더믹에 취약하고 불평등한지 드러나면서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노력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sdgintegration.undp.org/covid-19>

<https://ko.wfp.org/>

<https://ko.wfp.org/zero-hunger>

[2020 - Hunger Map | World Food Programme \(wfp.org\)](#)

<https://www.wfp.org/publications/2020-global-report-food-crises> : WFP 2020

GLOBALFOODCRISES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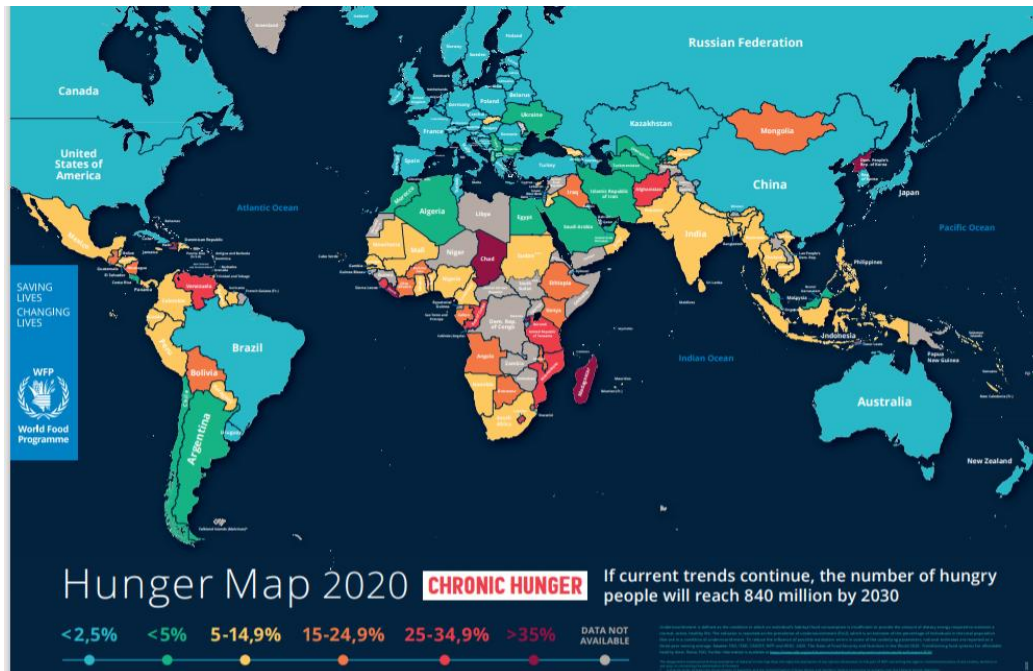
<https://ko.wfp.org/news/covid-19-will-double-number-people-facing-food-crises-unless-swift-action-taken>

김용준, 이수행, 박정지 (202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농업,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이슈 & 진단, 1-25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50633>

(영문)

ZERO HUNGER retreating due to Corona 19

Goal 2 ZERO HUNGER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s a typical goal threatened by COVID-19. The goals of ending hunger, achieving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ing sustainable agriculture have been partly realized. The number of undernourished people has dropped by almost half in the past two decades. Central and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ave all made huge progress. Still, today there were 821million people chronically undernourished. In particular, 12.9 percent of the population lives in developing countries suffering from malnutrition, which causes half (45 percent) of children to die per year. Furthermore, the economic slowdown and the disruption of food value chains caused by the pandemic are exacerbating hunger and food insecurity.



The number of people facing acute food insecurity (IPC/CH 3 or worse) stands to rise to 265 million in 2020, up by 130 million from the 135 million in 2019, as a result of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Conflict/insecurity, weather extremes, desert locusts,

economic shocks, and COVID-19 are expected to be the key drivers of acute food insecurity in 2020. The estimate was announced alongside the release of the Global Report on Food Crises, produced by WFP and 15 other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partners.

* IPC/CH: The Hunger index which consists of a scale from 1 None to 5 Catastrophe. Phase 3 From CRISIS is a step that calls for urgent action to protect families and reduce the food consumption gap.

Since COVID-19, agri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have also changed. The limited movement of logistics and human resources has disrupted the food supply chain of the world's agriculture industry, and the demand and supply of food are undergoing major changes. If the current situation is prolonged, the border blockade increases the risk of food security in food import-dependent countries, and there is growing concern about rising food prices and "food hoarding" due to the spread of protectionism and rising import raw material prices. In particular, the following crises can be seen in terms of food supply for domestic agriculture. The suspension of public school meals under the closure order deepens the food problem of the socially vulnerable, and it is difficult to dispose of low-preservation agricultural inventories for school meal delivery farmers. The delayed entry of migrant workers, a key labor force in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causes production disruptions. Moreover, migrant workers are at a high risk of spreading infectious diseases due to poor working conditions and difficulty in keeping with social distance and access to health services. It has also been pointed out that since COVID- 19, food purchasing patterns have changed due to the increase in online food purchasing, and food delivery businesses have been increasing. Besides, the need for measures to stabilize farmers' income in all directions, such as measures to boost the social buffer function by expanding the public policy of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o accept temporary urban unemployment and disaster insurance to support farmers' income, is being called out. (Kim Young-joon, Lee Soo-haeng, Park Jung-ji, 2020)

WFP's Chief Economist, Arif Husain said: "COVID-19 is potentially catastrophic for millions who are already hanging by a thread. It is a hammer blow for millions more who can only eat if they earn a wage. Lockdowns and global economic recession have

already decimated their nest eggs. It only takes one more shock – like COVID-19 – to push them over the edge. We must collectively act now to mitigate the impact of this global catastrophe.” Now, getting “back to normal” is simply not feasible—because “normal” got us here. The Pandemic crisis has shown us how deeply connected we are to others and the planet.

As it becomes clear how fragile and unequal the existing food system and market are, we should move on to a new paradigm, not an effort to return to normal.

What can we do for the goal to end hunger? The WFP is trying to solve the food problem by focusing on five-stage activities for “zero hunger” (put the furthest behind first, pave the road from farm to market, reduce food waste, encourage a sustainable variety of crops, make nutrition a priority, starting with a child’s first 1000 days). Among them, “reducing food waste” is an action that can be practiced by us as global citizens. About one-third of the food we produce each year is lost or wasted, costing the global economy nearly US \$1trillion annually. In developing countries, food is lost during production, as crops go unused or unprocessed because of poor storage or because the farmers cannot get their goods to market, while in developed countries it is often wasted on the plate. The habit of buying and cooking as much as necessary, and not ordering more than necessary, is a small but important effort. We must be aware that garbage disposal also caus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nomic losses.